



통권 66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7. 4.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큰물파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 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평균 1백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대로가면 7~8월에는 식량이 바닥나 최대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장면. 범국민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민변·민예총·전국연합 등 30여개 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



경찰 폭력 이대로 좋은가?

경찰관서 마다엔 '정의사회구현'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또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면 경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호국, 봉사,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야 하며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 고운말과 겸손, 친절해야 함은 물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대로라면 정의사회구현의 실천자이고 민중의 지팡이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경찰 실상은 어떠한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민중의 지팡이'가 폭력 몽둥이로 둔갑하여 부패 정권을 규탄하는 양심의 소리에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맞서고 있어 국민적 규탄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지난 2월 2일,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빼앗긴 노점 집기를 찾으려고 경기도 기흥읍 신갈 파출소에 들어갔던 민병일(40세, 구갈 철거민 대책위 조직부장)씨가 경찰 폭력으로 두개골이 파손되어 혼수상태로 있다가 2월 15일 끝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민씨를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자 넘어져 혼수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3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정수리와 이마 사이의 골절"이라고 밝혀 경찰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이같은 경찰 폭력은 같은 날 부평경찰서 신곡 파출소에서 있었다. 노점상 이종훈(38)씨가 파출소 순경으로부터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구둣발로 가슴을 걷어채어 쓰러지면서 의식불명인 채 뇌사 상태였다가 2월 23일 숨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살인 폭력이 경찰관서 안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약한 자를 도와 어려움을 덜어 주고 억울한 일을 옳게 살피 잘잘못을 공정하게 풀어주어야 함은 물론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해도 그 잘못됨과 사람과는 따로 떼어 인권침해가 없게 처리해야 함이 경찰의 본분일진대 민원으로 찾아온 시민을 폭력으로 대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찰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긴 개별 경찰관의 단순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정의, 인권에 대한 경찰 일반의 잘못된 인식과 시민에 대한 터무니없는 우월적인 권위의식, 더 나아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기 주체성이 없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한 경찰의 잘못된 모습은 안보와 공안 논리만을 내세워 헌법과 관계 법률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교육재정확보'와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하던 연세대 노수석 학생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폭력 진압으로 죽임을 당한지 1주기를 며칠 앞두고 3월 20일 광주 조선대에서 또 한 학생이 경찰기동대의 무차별적 최루탄 난사와 공격적 진압과정에서 숨져갔다.

이날 조선대에서는 '남충련 개강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날 정오쯤 광주에 온 여수 순천지구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경찰 저지로 학교에 못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류재을(20. 행정학과 2년)학생도 조선대생 300여명과 함께 교문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의 최루탄 공격으로 쫓기는 가운데 쓰러져 심장맥박이 약해지면서 끝내 3시 5분 심장이 멈춰 숨지고 말았다. 또한 3월 22일 '고류재을 열사 살인폭력만행 규탄집회'를 마치고 거리선전을 하러나간 남충련 학생들에게 경찰은 다연발 최루탄 발사와 근접 최루분사기를 무차별 쏘아대면서 학교안까지 침입하며 공격적 진압을 하는가 하면 일명 '쇠도리개', '쌍철봉' 등으로 학생들을 마구 때렸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다. 학생들 행사라면 무조건 진압으로 맞서는 경찰의 불법행위야말로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그 사례들 몇가지를 더 들어 보기로 한다.

2월 25일 밤 10시 50분 서대문 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150여명이 신한국당 서울시 지부에 화염병과 페인트 병을 던진 서충련 소속 학생들을 잡겠다며 (학생들이 신한국당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여 시위했다고 함) 신한국당사 인근 경기대에 난입,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가질 문화 공연을 준비하던 학생과 귀가중이던 학생 12명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여 곤봉으로 내리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다 혐의를 못찾고 훈방 조치한 일이 있었다. 2월 25일 한양대에서는 한충련 소속 학생 800여명이 '악법철폐, 살인폭력, 부채 비리 규탄집회'를 갖고 거리선전을 나서다가 9개중대 1,100여 무장경찰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학교안까지 불법침입, 학생 7명을 성동서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로 머리를 7바늘 찌매고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2월 23일 덕성여대 앞에서 이 학교 총학생회장을 강제 연행하며 이를 말리던 여학생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기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

3월 4일엔 장도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경찰 2개중대 300여명이 한림대 학생회관을 가로막은 채 사복경찰 100여명이 학생회관에 불법침입, 강충련 선전국장 정현호(28) 학생을 찾다며 압수수색을 하였다. 3월 7일 오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 1000여명이 충북 속리산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수원대생 900여명이 나누어 탄 차량 22대를 강제로 세우고 불법검문검색을 하며, 이세경(23, 환경공학 4년, 수원대 부총학생회장) 학생을 연행하였다. 이밖에도 서충련대 의원 대회, 한충련 대의원대회 등 학생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옥내행사조차 탄압하였다.

이같은 경찰의 폭력진압은 학원 뿐 아니라 집회신고 등 법적절차를 거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의 집회와 집회신고가 필요없는 문화예술공연 마저도 가로막아 나르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경찰의 불법폭력과 국민 기본권을 짓밟는 만행에 분노와 규탄만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반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복무규정을 몰각한 경찰 이전에 경찰, 검찰,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시대 역행적 낡은 안보와 공안논리에 있으며 더 원천적으로는 정권 자체의 민주주의와 사회진보에 대한 의지, 평화통일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살인폭력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바로하라.

반민주 악법 없애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

심부름이나 조금씩 할라고 했ندی

편집부



▲ 허영철, 조경자 남

선생님은 웃고 계셨다. 눈 간 곳의 끝도 역시 평야인 만경평야를 지나고 지나 도착한 김제역에서 선생님은 웃고 계셨다. 미리 마중을 나와 꽃샘추위가 활권 차가운 손을 비비며.

“택시는 무신. 여그서 십오분만 걸으면 되ندی 건지요.”

일흔 여덟인 선생님의 ‘젊은 걸음’을 따라 잡아, 지꾸 넓어지는 거리를 좁히느라 이제 갓 서른인 나는 바빠 뛰다 쉴이 걸어 아담하고 예쁜 한옥에 도착했다. 문패에 새겨진 것처럼 ‘허영철, 조경자’님의 보금자리에.

“오메. 위째 이리 쉬이 오신다요. 점심 자시고 오실줄 알았드만.”

“이, 갈적에는 식당을 봐뒀ندی 오다 봉게 식당을 찾을수가 없어서.”

“아이고, 당신도 참 갑갑하십니다. 위째 5년 가차이 산 동네서 손님 밥 대접할 곳도 못 찾아 그냥 오씨오. 이?”

“글쎄말요. 요 골목 돌아 건물아래 있는 집이 음식점잉게 시켜 묵재.”

선생님은 또 얼굴하나 가득 웃었다.

윤구병 선생의 농장에서 가져 왔다는 갈대주를 반주삼아 푸짐한 잡채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은 전북 부안군 부안면 부곡리에서

1920년에 나셨다.

3대 독자이신 아버님 허광언 님의 장남으로 나셨으니, 그 넘쳤을 사랑은 감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8살되던 1927년, 계몽운동 하는 사람들이 세운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허씨 집성촌이던 마을에는 정식학교가 없었고, 1933년경에야 학교가 생겼기 때문이다.

4년을 사립학교에 다닌 후 다시 선생님은 3년간 한문서당을 다닌다.

1936년 경제공황으로 벼농사짓던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다. 질소 비료값만 5원인데, 벼 한 섬 가격도 5원이었으니 정직하게 땅만 보고 산 농민들이 모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길로 선생님은 노동자로 나선다. 17세의 팔팔한 청년이던 선생님은 어디론가 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다른 세상을 접하기를 위해 함경도로 떠난다.

선생님은 한창 공사중인 단천과 풍산간을 잇는 단풍선 철도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수풍발전소를 잇는 철도공사장과 수풍발전소 댐 공사장에서 노동을 했다.

타향에서 노동을 통해 실직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 선생님은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가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 곳에서 ‘손가락이 빠진’ 일본인 노동자 가가야를 만나 선생님이 찾아 헤메던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손가락이 빠진 사연을 낭중에 물어보니

“결혼해서 월매나 같이 살았간디요. 저 사람은 후딱후딱 몸이 빨라 일한다며 어디로 다니시고, 해방되고는 또 수배를 받아 어느날은 지붕우서 잠을 자는디. 방에 있는 사람은 간이 떨어져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간요. 아이고, 그 고생한 것 생각하면...”

노동운동을 하다 잡혀 고문당해 그리 됐다고 하드만요. 무신 일이 있으면 현장 감독도 한날 노동자인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하길래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만 했죠.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것을 듣게 되고, 처음으로 ‘잉여가치론’ 같은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을 팜프렛으로 몰래 빌려 읽었는데, 아조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느낌이드라고요. 심훈의 ‘상록수’ 나 이광수의 ‘흙’ 같은 책을 읽어봐도 써원한 답이 나오는데 없었는데, 가가야가 빌려주는 팜프렛을 읽어보니 명쾌한 답이 나오드란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생님은 ‘아, 바로이 거구나’ 하는 깨침을 일본땅에서 얻었다.

1943년 선생님은 어머니의 종용으로 귀국한다. 스물만 넘어도 총각임이 부끄러운 시대였으니, 타향과 타국을 떠돌며 스물을 후딱 넘긴 아들의 결혼이 집안의 중대사였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그 해 조정자님과 백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아름다운 약속, 백년가약을 맺는다.

조정자님의 아버님은 운정 조기담 선생으로, 운정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부터 군자금 모집해 상해로 보낸 혐의로 여러번 징역을 산 애국지사다. 그 일로 꽤 유복하던 집안은 조기담님이 손수 농사에 나서야 할만큼 어려워졌다.

“결혼해서 월매나 같이 살았간디요. 저 사람은 후딱후딱 몸이 빨라 일한다며 어디로 다니시고, 해방되고는 또 수배를 받아 어느날은 지붕우서 잠을 자는디. 방에 있는

사람은 간이 떨어져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간요. 아이고, 그 고생한 것 생각하면...”

부부의 살가운 정보다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의리로 부부의 연을 54년간이나 변함없이 지켜온 조정자님이 말씀해 주는 선생님의 젊은 시절얘기다.

44년 선생님은 다시 함경북도 아오지로, 문천 천내리 제련소로 나가 일을 했다. 그리고 45년 집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았다.

해방후 정치해설 등 계몽운동을 하던 선생님은 46년 ‘부안면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했다.

그후 46년 10월 민중항쟁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선생님은 47년 3. 22 전국 총파업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24시간 시한제 총파업을 벌였는데 해방을 맞고도 다시 미군정에 의해 식민상태에 놓인 것에 분노한 시위군중들은 면사무소의 관공서 뿐아니라 지서까지 모두 장악했다. 이에 고창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들어와 조직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한다.

“간부들은 미리 피할 수 있었지만 애먼 농민들은 경찰서 마당에 주옥 늘어 앉아 매 맞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농삿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끌려가지 않고 피한 사람덜은 산이 인근에 있으면 산에 숨어 지내고, 산이 없는 사람덜은 들 끝에 쌓아둔 두엄뒤에 숨어 지내야 했으니 생활덜이 엉망이었죠. 참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그전까지 모두 호의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다. 경찰이 출동하면 어느 경찰서, 어느 경찰이 지금 누구집 앞을 지나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까지 쉬쉬하며 발빠르게 알려주던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던 조직에 금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늘 좋은 맘과 웃는 얼굴로 마을사람을 대해 친분이 두텁고 일하면서 인심을 잃지 않아 신뢰가 쌓인 선생님은 조직을 수습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워 차차 조직이 복원될 즈음이면 큰 투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48년 2. 27 구국투쟁에서, UN 한국감시단 입국반대투쟁, 그리고 3.1절 투쟁까지 굵직굵직한 투쟁들은 겨우 길러낸 조직에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는 투쟁들이었다. 그러던 중 48년 3월 5일 변산에 숨어지내던 선생님은 전단을 뿌리고 '아지트'로 돌아가던 중 체포되었다.

'좌파'의 일을 하던 사람들은, 붙잡히면 현장에서 몽둥이 찔림으로 죽게 되어도 아픔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해야만 하던 살벌한 시기였다.

"아지트 확보를 담당하던 사람이 검거되어 조직에 대해 다 불어버려 허망하게 체포된 것이다. 그 사람이 아조 진실되고 일 잘 하던 사람인데 아마 고문이 하도 심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비판보다는 동지가 당했을 인건적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군당 조직을 책임지던 사람의 배를 부절가락으로 모두 지저놓을 정도의 혹독한 고문이 있었지만, 부안 치안재판소에서 선생님은 벌금 15,000원과 노역 3개월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징역을 살고 나온 선생님 앞에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또 다시 무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8월 6일 '인민공화국 선거'를 앞두고 부안면에서 '연판장'을 돌려 대표를 선발해 북으로 보내는 일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해 8월 다시 체포되어 정읍재판소에서 검사취조를 받았다. 사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장인어른' 덕에 검사 직결처분으로 벌금 20,000원을 내고 풀려났다.

검사는 독립투사였던 조기담 선생이 장인임을 알고 '장인을 아주 훌륭한 분을 두셨구만요. 그 분을 봐서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가니 차후에는 이런 일로 다시 만나지 맙시다.'며 즉결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49년, '조직을 수습하던 일'이 탄로나 그 일로 선생님은 아내와 5살난 딸,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완전히 떠나야 했다.

서울로, 강원도 영월로 피해다니시던 선생님은 6.25 직전 집으로 돌아왔다.

전쟁통인 50년 8월 선생님은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9월에는 도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서울에 있는 재직간부교육기관인 '내각 간부학교'로 올라가게 되었다. 부상병 운반 차량을 빌어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해 겨우 도착한 서울에는 이미 미군이 들어와 있었고, 선생님은 막상 공부는 한시간도 하지 못한 채 서울시 방위대로 편대되었다. 만주까지 갔다 51년 평양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황해도로 파견되어 '장풍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다.

‘처음부터 큰 뜻이 없었어요. 바래지 않는디도 자꼬 추천들 했썬능게 위째 위째 나서게 되었제.

심부름이나 조금씩 할라고 했는다...’ 한 선생님의 소박한 바람은 91년,

비전향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를 석방시킬 때까지 37년동안이나 갇혀 지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53년 8월 ‘갈라진 민족을 하루라도 빨리 통일시키려는 일념으로, 더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남으로 내려 온다. 그러나 다음해인 55년 장항서 체포되어 무기수가 되었다.

‘처음부터 큰 뜻이 없었어요. 바래지 않는디도 자꼬 추천들 했썬능게 위째 위째 나서게 되었제. 심부름이나 조금씩 할라고 했는다...’ 한 선생님의 소박한 바람은 91년, 비전향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를 석방시킬 때까지 37년동안이나 갇혀 지내야 했던 것이다.

“전향 안한다고 맞은 것보담 통방하다 걸려서 많이 맞았는데, 예지간하면 그 안에서도 마찰없이 지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드만요.”

선생님에게는 쉼 돌이 된 딸과 마흔 여덟인 아들이 있다.

딸은 미국서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전북대 정외과를 나와 현재 선생님이 교직에 몸담고 있다. 선생님이 비워둔 시간동안 조정자님이 혼자 힘으로 억척스레 일구고 키워낸 소중한 열매들이다.

“나올란지 알았간디요. 지날 거고서 영영 못 나올 사람인갑다 생각했죠.”라고 말씀하시는 조정자님에게 잘 성장한 자식들은, 안에서 고생한 남편과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자랑이다.

선생님의 아들은 무주에 살면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선생님을 뵈러 와 꼭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돌아 간다.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고 자란 아버지를 42년만에 찾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드릴 효

도의 시간과 아버지로부터 받을 사랑의 시간이 짧기만해서 일까. 그리고 이제 실컷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중년의 아들들에겐 또 다른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일어서려는데 전화가 한통 걸려 왔다. 월급을 받아 가라는 전화다. 말씀대로 ‘금새 다녀오신’ 선생님은 봉투를 열어 한달 노동의 대가로 받은 40만원을 세신다. 93년부터 시작한 경비일에서 받으신 임금이다.

액수를 확인하는 선생님 옆에서 조정자님은 말씀하신다.

“평생을 돈이라곤 모르고 운동만하며 사신 낭만이 늘그막에 저리 돈을 번다고 애를 쓰고 다니시니... 그래도 그때나 이때나 쓸 줄을 알간디요. 당신 월급 탔응게 손님덜 저녁 좀 맛난 것으로 대접 하시씨요.”

선생님은 갈대주로 불과해진 얼굴 가득 또 웃음을 피운다. 언제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선생님의 웃음이 고운 노을처럼 방안 가득 포근하게 퍼지는 웃음.

“이, 그려야제.”

기차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나오는 우리를 따라 나온 선생님은 ‘가다 배고플텐디 저녁 사 잡수’라며 3만원이나 든 흰 봉투를 굳이 마다 하는데도 억지고 찢어 넣어 주신다.

좌우의 대결이 홀고간 고향에 가면 요즘도 ‘동네사람들과 그때 봉화 올린 얘기며 이런저런 얘기를 웃으며 한다’는, ‘좌파운동’을 했는데도 선생님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선생님의 그 ‘고향’이 밤기차 창밖으로 보일 듯 말 듯했다. 밤이 내린 만경평야 너른들 위로. ~~한~~

한순간도 양심수를 잊어서는 안된다

편집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내 아들과 딸이 좋은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 특히 식민지 세상에서 태어나 분단과 전쟁, 가난, 반민주 속에서 한평생을 사신 우리네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 오셨을게다. 그런데 정성들여 키워 어렵사리 대학까지 보낸 자식이 어느날 데모하다가 잡혀간다면 어머니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는 망연자실해 있다가 다행히 아들이 풀려나면 다시는 데모하지 말라며 빙고 타이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달에 만난 이정님 어머니(55세, 동국대 86학번 박성철 씨 어머니)는 당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식들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뿌리가 되어주고 자식이 가는 길을 함께 하는 동지가 된 특별한 분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구속된 뒤에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행동했고 아들이 집행유예로 나온 뒤에도 10년을 한결같이 민가협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 자식이 감옥에 있을 때는 발벗고 민주화를 외칠 수 있지만, 일단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는 그쪽에 신경조차 쓰지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에게 '성철이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어머니와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감동에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전주에 일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3남1녀의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서울로 옮겨온다. 지하실 단칸방에서, 가게방에서 여섯 식구가 모여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어머니는 한번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슈퍼도 해보고 지금까지 꼬박 18년 동안 책외판원 일을 하셨다. 어렵게 키운 3남1녀는 모두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다. 특히 둘째 아들 성철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고 야무져서' 할머니들이 '잘난놈'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고 한다.

부잣집 지하 단칸방에서 여섯식구가 살 때는 공부할 곳이 없어서 대문앞에서 숙제를 할 정도로 가난하였지만, 박성철씨는 공부를 매우 잘했다고 한다. 그런 둘째가 "형은 장남이니까 대학을 가야하고, 남동생은 동생이니까 보내야하고, 여동생은 하나 뿐인 딸이니까 대학을 보내야 하니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을 때, 어머니는 속으로 '내가 너를 대학에 못보내면 죽어서도 한이 될 것이다'고 다짐하셨다 한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원서를 내서 박성철씨는 동국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86학번)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지만 어려운 경제에 3남1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보낸 성철씨가 어느날 김치 담그는 것을 보며 "어머니, 속 맛있게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말하고 나간 뒤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TV를

통해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박성철씨는 86년 11월 13일, 일명 '신길동 사건'으로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박성철씨가 연행된지 4일 후에 영등포구치소에서 처음 아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네가 가는 길 이라면 죽을 길도 따라가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가협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둘러 어머니들을 만나고 그 뒤로 함께 민가협 활동을 시작 하신다.

어머니는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나오라고 으박지르기는 커녕 "자랑스런 아들인데 왜 걱정하세요"라는 아들 말대로 그를 자랑스럽게 믿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럽고 착하고 바른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성철씨는 87년 3월 10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출옥하였다. 장기수, 조작간첩 사건 등 중형을 사는 분과 그 가족에 비하면 박성철씨의 감옥생활과 어머니의 고통은 매우 짧은 편일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민가협 활동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때의 악몽을 잊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성철씨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박성철씨는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한 작년까지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였고 어머니는 10여년이 넘도록 민가협과 인연을 끊지 않고 열심히 투쟁에 동참하고 계신다.

어머니가 민가협 활동을 그만 둘 수 없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박종철 열사와 강경대 열사 때문이었다고 한다. 특히 강경대 열사의 장례 때는 마치내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이 가슴이 아파서 너무도 힘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자식을 감옥에 둔 민가협

어머니들을 볼때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을 느끼신다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끌려갈 때마다 '우리 아들딸도 이렇게 개처럼 끌려가겠구나'는 생각과 거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것에 오히려 위안이 된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직도 출판사 외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외에는 항상 민가협 활동을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모두 민가협에 쓰고 싶다고 밝게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끌려갈 때마다 '
우리 아들딸도 이렇게 개처
럼 끌려가겠구나'는 생각과
거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것에 오히려
위안이 된다고 한다.

어머니는 모진 풍파없이 곱게 세상을 사신 분 같았다. 수수하지만 예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입성, 그 어떤 화장법 보다는 돋보이는 따뜻하고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여유있고 포근하였다. 그 모습 어디에도 궁색한 모습이나 삶에 찌들어 그늘진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음식을 드시기 불편할 정도로 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돈 한푼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다. 마다마다가 굶은 매듭이진 거친 손가락으로 어머니는 3남1녀

를 곱게 키우고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양심수를 돌봐주고 계신 것이다. 자녀들에게 지금도 "한순간도 양심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다는 어머니는 사범대를 나온 아들이 "이런 세상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한다.

바른 길에 대한 신념이 변색되지 않은 채 곱게 살아가는 박성철씨 가족과 강하고 든든한 동지로 중심을 잡아주는 어머니. 참으로 아름답고 참된 삶을 가꾸어나가는 우리들의 가족이었다. ✕

겨레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권양섭, 진태운 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약력과 권양섭 선생님에 대한 임기만 민가협 상임의장의 조사를 실습니다.

어릴 적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항일운동과 해방 이후 하나된 조국을 꿈꾸며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권양섭 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지난 3월 18일, 81세를 일기로 한많은 삶을 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길엔 많은 옥중동지들과 민가협을 비롯한 민주단체 회원들, 청년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한일병원 영안실에서 '고 권양섭 선생 우인장' 영결식을 갖고 경기도 벽제 용미리 서울 시립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고 권양섭 선생님 약력

- 1917. 경북 봉화에서 출생
- 1929. 효령보통학교 입학
- 1934. 큰 형님 권효섭(1948년 경북도당책)님을 도와 항일운동
- 1937. 함경도 청진 자동차 정비소 수리공
- 1939. 대구에서 운수노동자로 일하면서 조석귀 님과 결혼
- 1942. 만주에서 권효섭 님과 함께 항일운동
- 1945. 해방중국 - 봉화인민위원회 활동
- 1946. 대구 10월 항쟁 참여 - 노조활동
- 1948. 남북계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지방전평대표로 참석
- 1948. 경북 달성 증석탄광 채탄부 노조재건 지도
- 1948. 대구에서 체포. 4년 선고받고 복역
- 1972. 경상도 통혁당사건으로 구속(부인, 아들3명, 여동생, 제수씨가 함께 구속), 무기징역 선고
- 1993. 형집행정지로 21년만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옥
- 1997. 3. 18. 이른 7시 20분 숙환으로 돌아가심

분단된 땅에 살면서 통일을 염원하다 26년 옥고를 치루고 민족의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던 진태운 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다 끝내 고향의 가족 품에 안겨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군을 떠나 남쪽으로 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1988. 12. 21. 가석방 조치로 출옥한 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강직한 성격과 포근한 마음으로 주변분들과 남다른 정을 맺어 왔지만 몸속에 수없이 박힌 파편조각처럼 우리민족이 갖고있는 가슴앓이를 하다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전주지역 성직자, 목회자와 사회단체, 청년학생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전주영동병원 영안실에 안치하였다가 허종현 신부님 집례로 4. 4. '고 진태운 선생 영결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회은 목사님의 기도, 한상렬 목사님 말씀, 임방규 선생님의 고인에 대한 약력 소개, 조창손 선생님의 조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끝으로 영결예배를 마치고 완주군 소양면 원암수양관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하관식에서는 원암수양관 백영규 관장님의 배려로 수양관 원생들이 건을 쓰는 등 장례의식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진태운 선생님 약력

- 1920. 2. 29. 함경남도 정평군 귀림면 유성리에서 태어남
- 1935.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어업에 종사

1945.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아 민청활동
 1947. 수산사업소 어로반장
 1950. 전쟁시기 군에 입대 위생병으로 복무
 1953. 정전협정 후 제대하여 다시 수산사업소 원래직장으로 복귀
 1962.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일하다 그 뒤 남쪽에서 체포됨
 1963. 4. 9.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 확정

1988. 12. 21.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조치로 출소
 출소후 완주군 구이면 대덕리 부국산업에서 일함
 1997. 4. 2. 이른 새벽 1시 40분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폐혈증으로 통일조국과 고향, 가족을 못보신 채 애석하게 운명(고향에 가족이 있고 슬하에 아드님 양만씨가 있음)

조 사

삼가 존경하는 권양섭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겨우내 모진 풍상에 시달리던 산과 들이 다시 물이 오르고 움이 트는 새봄에 홀연 선생님께서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늘 인자하시고 말없이 저희들이 모이는 자리에 조용히 함께 하시던 선생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바라던 세상을 보시기도 전에 가셨단 말입니까? 선생님의 가족분들, 사모님과 권낙기 선생님, 자부님까지 이땅을 위해 이 거래를 위해 겪은 고초와 기나긴 희생은 이 지구상에서 유래없는 가슴아픈 조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세기가 될 만큼 겪은 가족들의 옥고를 딛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오래오래 사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신음하셨습니다. 4년도 되기 전에 이 땅의 통일도 보지 못하시고 나쁜 놈들이 망하는 꼴도 보시기 전에 가셨습니다.

참으로 원통합니다. 옥중에 5년 동안 매일같이 함께 운동시간을 같이 한 김석형 선생님이 선생님 영전에 목놓아 우시는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희 민가협 엄마들은 한분, 한분의 선생님들께서 눈을 감을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시고 좋은 세상 보시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시다니...

선생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민주세력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굳은 양심과 바른 정의로 이 땅을 이끌고 싸우고 죽어갔고 옥에 갇혔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하듯이, 또한 양심수를 가두어놓고 내놓지 않은 정권이 잘될 리야 없지요. 꼭 망하고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메아리없는 싸움, 대답없는 석방운동을 할 때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 30년 동안 좁은 감옥에서 양심을 지키는 양심수가 있는 한 저희들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 선생님께서는 꼭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원을 이루도록 저세상에서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통일이 되고 같은 민족이 다같이 고루 잘사는 세상이 되게 지켜 주십시오. 모략과 조작이 판치는 세상과 못된 인간 쓰레기들을 물리치고 옥에 갇힌 애국자는 모두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권양섭 선생님 고이 가소서.

1997년 3월 20일 민가협 임기란 올림

허유정 회원을 만나...

편집부



‘왕비의 후예’를 만났다. 이화의료원(동대문) 분만실에서 일하는 허유정(29세)회원이 그 주인 공이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므로 보통 때는 ‘알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다는 귀동냥을 들었다. 그래서 오후근무가 있는 일요일 오전에 어렵사리 시간을 맞추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왕비의 후예’는 욕심이 예사롭지 않아 토요일 밤에 명지산 야간산행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일정에 맞춘다면 취재든 뭐든...’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앓터어 기껏해야 반산책 정도겠거니 하며 두말않고 그러마했다. 그러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지독한 밤이 되고 말았다.

주말답게 상봉터미널은 행락객들로 북적였다. 달구어질대로 달구어진 저녁하늘 귀퉁이에서 그가 나타났다. 근무를 끝내고 산행차림으로 나오느라 종종걸음이 었다. 글썽이 양 손에 들린 먹을 것이 담긴 꾸러미를 보더니 목련꽃처럼 해사한 웃음을 지었다.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쌓인 탁

한 호흡을 가래침처럼 내뱉으며 시외버스에 올랐다.

제일 골머리 앓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 음, 신랑감으로 김해 김씨를 피해야 해요.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비가 저의 시조거든요. 맞나? 근데 정작 골치아픈 것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들이예요. 인연이 될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실친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 기억하는데 말만 하고 잊어버리나 봐요. 말을 말던지... 누가누가 말을 꺼냈는지 다 기억하니까 빨랑들 실친했으면 해요.

직장생활은 어떻게 꾸리고 계십니까?

- 분만실에 근무하니까 당연히 산모들을 상대하죠. 진통 시작하는 산모들을 조치하고 덩달아 허둥대는 가족들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해야 해요. 가슴 아프지만 분만실이라 해서 항상 탄생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산이나 사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일이 몰릴 때면 정신없이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나야만 해요.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다보면 퇴근 쯤에는 다리가 통통 부어오르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어쩔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산모나 가족들을 대하다보면 저도 따라서 정신이 없을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미혼모를 돌보는 기관에 나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백의의 천사나 나이팅게일이니 해서 우아하고 다소곳한 그림은 저 멀리 달아나버렸다. 철근같은 체력으로 땀흘리는 노동자의 목소리였다.

- 병원에서 일을 마치면 대개 후원회 사무실에 들러서 별다른 일이 없나 살피고 집으로 갈 때가 많아요. 거기는 딱히 볼 일이 있어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깝다보니 들렀다가 소식지 작업도 하고 영치금 발송 작업도 하고 갑자기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도 하고, 주로 단순 작업을 많이 하죠.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들른 사무실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는 즐거움과 발길이 뜸하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는 반가움도 제법 쓸쓸하고....

후원회와의 인연은 92년 겨울 선배의 권유로 맺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는데도 사투리가 새나오지 않았다. 89년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입학하느라 처음 서울에 발을 디뎠다. 대학 시절에는 ‘양손에 장고채를 창처럼 치켜들고, 방패처럼 장고를 배에 두르고’ 시위하듯이 풍물과

민요를 배우는 일에 폭 빠져 지냈다. 지금은 거의 썩히고 있을 뿐이지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서울에서 썩썩하게 지냈다. 스스로도 대견해 하는 부분이였다. 그런 탓인지 부산 근처 지명만 나와도 눈을 반짝이며 반가와한다.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해말간 얼굴이었다. 소식지가 600부일 때부터 봉투 풀칠하는 일을 하더니 1300부가 된 지금껏 계속하고 있었다. 지겨워서라도 손을 뗄만한데 거르지 않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이 몰같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꽤 오래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너무 서운해요. 저는 후원회에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선배회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알지도 못한채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면 속상하죠. 후원회에 회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러는 사이 밀리던 차가 가평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지산 가는 차편은 끊겼다고 한다. 어쩌나 하는 얼굴로 서성대는데 '별걸 다 걱정하는군.' 하는 몸짓으로 대뜸 지나가는 차를 세웠다. 어안이 병병해진다. 그런 식으로 산까지 네 번이나 히치를 했다. 차편도 끊긴데다 시골 밤공기도

들어켰으니 산에 오른 셈치고 민박이나 하다 돌아갔으면 하는 궁리가 무참하게 깨졌다. 삼월인데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가파른 산을 헉헉대며 오르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인가의 불빛이 강렬한 유혹으로 비쳐졌다. 따뜻한 끼니가 그림고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왕비의 후에'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행의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맨 앞에 서서 걸을 뿐이다. 산에 들어서니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변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무슨 생각으로 걸음을 옮기는가?

- 전망을 찾으라치면 지금의 어둠처럼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껏 살아오면서 무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어서 이후의 삶이 웅골차고 단단하겠구나 싶은 긍정을 찾고 싶었는데 힘드네요. 제 자신이 너무 안이하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희망이 있다는 말에 터무니없이 마음놓고 살아버린 것 같아요. 희망을 만들어 가야할 시기에 남의 희망, 앞선 사람들의 희망에 무임승차 해버리지 않았나 싶네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아요.

언뜻 객기로 비칠 그의 야간산행에는 매운 소리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산행을 하는 동안 낭떠러지에서 떨리는 다리로 기어내리느라 혼쫓이 났고 날선 바위에 매달리느라 이마에서 땀이 썰새없이 배어나왔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경험은 두 번 생각

하기 싫을 만치 오싹했다. 다 내려왔을 때는 지칠대로 지쳐 그야말로 사람이 몰골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채근하며 재촉했다. 아무리 '왕비의 후에'라지만 한마디 퍼부어낼 요량으로 고개를 쳐드니 오후근무에 늦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맏소사! 이 지경에서 근무할 생각이라니...

그제서야 그를 이해했다. 이 '왕비의 후에'에게는 삶이란 것이 순간도 헛투로 혹은 느슨하게 넘길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이 있었다. 처음처럼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여러가지 기억이 겹쳐졌다. 오월 민가협 장터에서 물기어린 노란 툄림처럼 생긴찬 모습으로 파전을 굽던 거하며, 매달 후원회 산행에서 나비처럼 바위틈을 날던 거. 지난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때 낭랑한 목소리로 한양대를 둘러싼 전경들에게 조목조목 따지던 거하며... 선사시대 바위그림을 볼 때처럼 굵고 힘찬 감동이 느껴졌다.

그와 더불어 미친듯이 어둠을 파고드니 동이 트면서 새롭게 준비되는 세상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켜켜이 쌓이는 절망들과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의지의 격임들,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가 찾는 전망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왕비의 후에'는 그러할 것이다. 툄림없이.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하유진 (학생)

00오빠.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일심단결이 되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양심수후원회에서 가는 등산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 처음엔 마음만 바빠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생각 끝에 가는데 좋을 것 같아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했어.

3월말 치고는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상쾌함을
느끼며 북악파크에 도착했어. 학교에서는 4학년이라
제일 고학년인데 모인 분들을 보니 평균연령이 좀
높은 것 같아 약간은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구. 하지만
용기를 내어 산을 올랐지. 워낙에 산을 못타
걱정이 되었는데 산을 타는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앞서는 모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오르다보니 몸에서 땀이 나 겉옷을 벗고
열심히 걸었어. 주위를 살피니 나뭇가지에 보일 듯
말 듯 새순이 돌아나고 있더라. 추운 겨울을 지내고
다시 살아오는 새순을 보니, 나는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언제나 부지런하던 오빠생각이 났어. 열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언제나 주위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내가 힘들어하면 동해횃집에 가서 회덮밥 시켜놓고
냇술 마시며, 직접적인 말이 아닌 간접적인 암시로
나를 깨닫게 해주었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일선사에 이르렀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입술을 꼭다문채 야무지게 산을 오르는 어린 아이서부
터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는 어르신까지. 평소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걸 보고 또 한 번
나의 나태함을 반성했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청춘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건 아닌가하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시원한
약숫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냈지.

보현봉에 오르니 아찔했어. 나 겁많은 거
오빠도 알지. 하지만 발밑에 잔란감처럼 곳곳에서
줄지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니 뿌듯해지더라.
애들이랑 '야호' 대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오라고
외치고 다시 바위를 타고 내려왔어. 배가 고프다
싶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고 하더군. 그런데
그날 따라 도시락을 많이 못싸왔다고 하더라.
배는 고프지, 바람은 엄청 불지……. 처량했지만
사람들이랑 함께 하니까 기분은 좋았어.

식사를 마치고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놀기 좋은
장소에 멈춰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
어르신들은 많이 안오셨더라. 그런데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더라. 컴퓨터 디자이너, 간호사,
트럭 운전 하시는 분, 학원강사, 회사원……. 많이
만나봤댔자 농민들이랑 노동자들 정도 만나보았었는
데… 내 만남의 폭이 정말로 좁다는 것도 느꼈지.
우리 소개할 차례가 되어 '바위처럼'을 썼어.
우리한테는 식사한 춤이지만 그 분들은 신선해
하시더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춤들을 보여드려하지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어.
소개가 끝난 후에는 둥글게 모여서 '둥글게 둥글게'
를 했어. 노는 게 우리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 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지. 하하

산을 다 내려와서는 회원중 두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뒷풀이 장소에 잠시 갔어. 청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더라구, 참 멋져보였어. 다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세상. 나도 그렇게 변하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했어. 좀 있다 친구들은 경희대에 김형찬 학우 대책위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보러 가고 나는 남았어. 다들 편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잖아. 물론 오빠는 누구에게나 털털하게 말 잘 붙였었지만.

장소를 옮겨 저녁을 먹고 노래부르고 이야기하며 밤 늦게까지 놀았어.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더니 '매일 밤 잠이 안 와 뒤척였던 게 언제였더라' 하듯이 바로 꿀아 떨어졌지.

그 다음날은 엄청 고생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말을 안들어서 수업에 지각할 뻔 하고, 길을 갈때도 후들거리며 이리저리 꺾이는 다리 때문에 참, 난리도 아니었어. 저녁때는 산행가서 만난 언니가 안부빼빼를 쳐주셨어. 또 어떤 분은 일요일날 어르신들과 강화도에 가는 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며 연락도 주시고, 한 번 만났는데 잊지 않고 연락해주시는 것 보고 '참 따뜻하다' 싶더라.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인데, 갔다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들어.

오빠. 사람을 사랑해야만 일도 있다는 것. 이제야 알겠다. 오빠가 작년에 힘들었어도 즐거워했던, 여유 있었던 이유. 이제야 알겠다. 나도 이제는 일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 챙기며, 사람들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야겠다. 일이 진행이 안되어도, 더디게 나가도 혼자 나가지 않고 같이 할거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사람이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으로'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 다음 산행때도 애들 손 붙잡고 꼭 가야겠어.

오빠. 몸 건강하고 항상 조심해. 

4월산행

싱그러운 봄입니다

산도 그림고 반가운 얼굴도 그리운 날,

4월, 그 함성에 젖어봅시다!

- 연 제 : 4월 20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 북한산(우이동-도선사-용암문-동장대-대동문
-진달래 능선-4,19 국립묘지 참배-통일의 집)
-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앞(6번, 28번, 23번, 6-1번)
- 준비할 것 : 맛있는 점심과 회비 3,000원

권양섭 선생님, 편히 쉬세요

오 형 식 (대구교도소 3100)

오늘 권양섭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달받았습니다. 고인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선생들은 뜻하지 않은 부고에 몹시 침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하여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법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이름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산 분이 아닙니다. 애족, 애민, 애국을 위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입니다. 감옥을 자기 집 모양 살았고 온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감옥, 저 감옥에 살고 어린 아이들은 생사조차 모르는 유리 결식아가 되었고 그 누구하나 가족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을 때 개인적 고통이나 고민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한번도 토로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장장애와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채송화에 덤벼드는 벌들을 잡아 벌침을 수없이 맞으며 주변에서 격정하는 선생들을 안심시키곤 하셨습니다.

1970년대 감옥살이는 춥고, 배고프고, 소름이 쭉쭉 끼치는 공포의 나날이었지요. 삶이 보증되지 못하던 시대였지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낙관적 세계관의 소유자였지요. 사모님이 출소하시고 가족들의 생활이 어렵기는 해도 하나씩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분명한데 좀처럼 내색을 많으시더군요.

내 기억으로 가장 기뻐하셨던 때는 권낙기 선생이 출소후 며느리를 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느님께서 집필하였던 책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다른 때 본 기억이 없습니다. 20년이나 같이 살면서 지켜보았지만 농담도 잘하시고 웃음도 잃지 않았지만 가정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초연하셨습니다. 고인이라고 하여 고통과 기쁨이 왜 없었겠나요. 아마도 옆에 같이 사는 선생들이 사정은 다르지만 가족사와 관련하여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고인은 한평생 트럭운전자였지요. 사회에 계실 때 다른 기사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지요. 같이 살던 선생들이 “자동차 운전은 할 줄 모르니 통일되는 날 우리를 백두산에까지 태워다 주시겠소?”하고 농 짚반 진담 짚반 물으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여부가 있나, 내가 늙어도 자동차 운전이라면 자신있다”고 큰소리 치셨는데 그 자동차를 영영 못타게 되었군요. 수많은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던 추억을 들추자면 끝없이 꼬리가 이어지는군요. 살아생전에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심지어 이름까지도 통일을 위해 바치셨는데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가시었군요.

하지만 자기 이속을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분열된 나라를 통일해 보겠다는 고인과 같은 분이 있음으로 하여 통일의 길은 만들어지고 있고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은 자기들의 조상과 역사를 자랑스레 될 것입니다.

권양섭 선생님! 장영살이 기간은 평생 삶의 기간에 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삶이라고 시간을 잡아먹은 겁니까. 출소후에 마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랐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우리 곁을 떠나시었나요. 그러나 선생님, 이제 미래는 젊은 주역들에게 물려주고 편히 쉬세요.

- 오형식 님은 1930년 서울 출생. 원산농업대 상급교원(조교수)역임. 1969년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위반구속. 현재 29년째 구금 중.
이 편지는 고 권양섭 님과 함께 감옥을 살았던 선생님이 권낙기 선생님께 보낸 위로 편지입니다.

이런 봄으로 오소서

이 정 우

더 이상 희망없이 죽은 듯

영글한 고목에

봄을 앞서 못 믿게 고운 꽃

흐드러져 피어나듯

나누어진 이 땅에도

이런 봄으로 오소서

허리 감은 가시 철조망 봄 기운 더 못 견디

박넝쿨 칙넝쿨로 환생하여 꽃 피우고

50년 묻혀 산 지뢰들

그 빛으로 더덕발 삼발되어 우리 기쁨되는

남북초병 총구마다

민들레가 피어나고

서로의 가슴 향할 무수한 탄알에도

그 기운 스며들어 강낭콩으로 피어나는

천지를 아우르는 기운

대포에도 미사일에도 평화의 물 올려

사과나무 미류나무로 뒤바뀌고

전투기 폭격기는

통일의 꿈 나르는

오색 비행기 되고마는

나누어진 이땅에도

이런 봄으로 오소서

이를 앞서

온 민족 가슴마다

되부는 희년의 믿음으로 옛것은 올려보내

핏줄은 핏줄로 함성은 함성으로

절절히 잇대어

이미

통일이다

하나이다

방방곡곡 터지게 외치는

나누어진 이땅에도

이런 봄으로 오소서



... 이 시를 쓴 이정우님은 1986년 강남사회복지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으로 유학. 현재 미국수도장로교회 집사로 오랫동안 안양심수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1985년 「民意」 4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96년 미국에서 시집 「마음에서 빛이 지면」을 출간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

구광희(동국대, 96년 한총련 문화국장), 박진영(고려대졸, 한총련 문화국원, 2.1) 김명현(인하대, 96년총학생회 투쟁국장, 2.10) 이재규(외국어대(용인) 총학생회장, 2.14) 이동우 이연석(동국대, 이적표현물소지, 2.21) 김은희(덕성여대 97년 총학생회장, 2.23) 이소영(전남대, 95년 조통위간부, 2.24) 이현아(전남대, 95년 총여회장, 2.24) 김형택(전남대, 96년 농대회장, 3.10) 이태환(한양대, 이적표현물소지, 3.15) 문지연(덕성여대 자연대 회장, 3.19) 한영진(명지대, 97년총학생회장, 3.24) 서상권(범민련 부경의장, 이적표현물 제작, 2.24) 도경훈(부경총련 조통위원장, 동아대 총학생회장, 3.28) 신재성(한신대 96 총학생회장, 경기남부학투련 의장, 3.30)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 2. 1

임미정(서울시립대) 정진희(경희대)

'빛나는 전망' - 2. 25

윤경미(부산여대) 김 강 강소영(이상 부산대)

'사회민주주의청년연합(사민청)' 사건 - 3. 18

조창묵(현 의장) 최인기(95년 의장) 박수정(사무처장) 강승현(총무국장) 변성민(노동사업위원장) 전경희(교육사업 위원장) 김치영(대중사업 위원장) 이미정 위홍환 방진옥 김은아 김정환 박종석 김현일(이상 회원)

'전국학생연대' 사건 - 2. 25

김용희(고려대 92, 95년 공대 학생회장) 이정호(서강대 90, 전 자연대 학생회장) 한기범(성균관대 92, 전국학생연대 5기 부의장) 나태준(서강대 90, 총학생회 전 총무국장)

정규상(현역군인, 성균관대 91)

'단기동맹' 사건 - 3. 24

오광모 송신원 한홍운 두용현(현역군인, 전주대 휴학)

● 노동자 구속자

이명환(상무택시 노조 노사대책부장, 업무방해 혐의) 김규식(기아자동차 노조원, 업방, 2.20)

● 집회 및 시위 관련 구속자

8.15 한총련 연세대 사건과 관련하여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조영준(현역군인, 부산대 휴학) 윤창근(부산대, 3.5) 강창한(밀양산업대, 3.21) 김선운(관동대, 2.20) 신대순(밀양산업대, 2.10)

2. 25 한총련 총궐기 집회와 관련하여 집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 배민균(건국대) 차동현(명지대) 이강희(명지대) 원정희(서울대) 황효석(한양대)

최우정(고 민병일대책위 상항실장, 2.19) 이진규 이광호 문 홍(조선대, 이상 학내시위)

최선웅(홍익대, 학내시위, 3.14) 박상태(단국대 천안, 시위도중 연행) 박학서/건국대, 장진익/홍익대, 이주호/명지대(서총련 대의원대회 참가, 3.25) 김우람(부산 동아대, 신한국당사 앞 시위, 3.25) 김완태(시립 인천대 인문대 부회장, 학내 집회, 3.27) 이상국(목원대, 시위 관련, 3.28) 홍동현 김세룡(이상 충남대, 한총련 총궐기 집회 참가, 3.28) 김용식(강원대 총학생회장, 시위 관련, 3.29) 손형진(성균관대, 한총련 총궐기대회, 3.28) 김남중(한림대 총학생회장, 3.30)

3. 1 - 3.1항쟁 78들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주최로 "노동법 개악 및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부패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결의대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려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

3 - 구학협 운영위원회.

- 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진관스님 후원의 밤"이 동국대에서 열림(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등 후원과 동국대 석림회 등 8개단체 주최, 불교인권위 주관)

- 5 - 직장암으로 5번을 수술하고 어려운 투병을 하시는 박노해 어머니를 찾아보다.

- 6 - 민가협 173회 목요일집회. 최근 연이어진 경찰 폭력 사태에 대한 사례발표(경기대-2.25 신한국당 서울시 지부 페인트병 투척과 관련하여 시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정사복 경찰 20여명이 학내로 난입하여 귀가중이던 학생 1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 이틀동안 불법 감금한 뒤 1명 불구속, 11명 무혐의로 풀려남. 강민조 선생-고 강경대 열사와 같이 경찰폭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전국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주최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조연설 임재경, 발제 김삼웅, 김봉우)

7 - 민가협 제12차 정기총회(기독교회관).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 회원들,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날치기 주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추구하고 '인간띠잇기 대회' 벌임

- 10 - 지난해 날치기 처리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

- 신인령 교수(이화여대)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은 날치기 안기부법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다.

- '범대회' 소속회원, 시민등 200여명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위헌판결 촉구집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 12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안기부법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를 통해 내국인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13 - 민가협 174회 목요일집회(전국연합 조양익 기획실장-노동법 국회통과 규탄 발언, 한양대-한총련 집회참가를 이유로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구속된 황효석 학생 사례, 이점성 회원(전경희 씨 어머니)-노동법 국회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주최하고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가 후원하여 세종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정 안기부법 문제와 대한' 세미나 열린다. 사회 장임원, 장주영 변호사 발제, 김경남 목사, 김동민 교수, 박충렬 씨, 이종희 지식인연대 사무처장, 정일용 연합통신 기자, 천정배 의원이 토론을 하다.

- 15 - 직장암으로 투병해오신 권양섭 선생님 성가병원에 입원.

- 17 - 성가병원으로 권양섭 선생님 문병.

- 제주도에 사시는 고성화 선생님 사무실 방문.
- 시흥 해명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 찾아보다.

얼마전 광주교도소에 구금중인 양희철 선생님 면회 다녀오셨다고 하심.

- 『후원회소식』65호 발송.

18 - 성가병원에 입원하셨던 권양섭 선생님께서 오전 7시 20분 끝내 운명하시다. 한일병원 영안실에 빈소를 차림.

-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의 '정신대' 할머니 김순덕(77세)님 등 7명이 서울지검에 진관스님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 내다.

-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방희선 판사의 연임을 탈락시킴. 방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직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경찰관 5명을 고발했으며 이 일로 인사발령이 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일이 있었음.

19 - 인천지방 검찰청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을 응징한 박기서(47세)씨에게 살인죄 적용 8년 구형.

20 - '고 권양섭 선생 우인장'. 영결식을 한일병원에서 갖고 경기도 벽제 용미리 서울시립 묘지에 안장. 고이 잠드소서.

- 민가협 175회 목요집회(고 민병일 대책위-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철거민 노점상 고 민병일씨의 사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진레이온 박인도 부위원장-원진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하라, 사민청 비대위-94년에 이어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회원들을 석방하라)

- 민가협 회원들 명동성당에서 직업병 전용병원 건축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원진레이온 가족들 격려방문

- 광주 조선대생 류재율(20, 행정학과)학생이 학

교 정문 앞에서 학교 출입을 막고있는 경찰과 맞서 시위하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다.

- 『말』4월호를 5곳의 교도소로 발송

21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의 제3차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스님은 안기부의 강압수사를 폭로하고 국가기밀 누설 등 공소사실을 부인.

- 노원경찰서 경찰 400여명, 광운대학교로 불법 침입, 학생 100여명을 강제 연행하고 수위실 유리창 등 파손.

23 - 양심수후원회 3월 산행(33명). 평창동 - 일선사 - 보현봉 - 평창동 능선 - 구기동으로 내려와 박미정, 이병건 회원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

-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민주수호 및 김형찬군 패유를 바라는 3.23 문화제 "97 역사의 물길을 민주의 바다로"가 '김형찬 대책위' 주최로 경희대에서 열림. 경찰이 학교를 막고 봉쇄하였으나 2,500여 시민, 학생들이 함께하여 날치기 안기부법 무효화를 요구하다.

25 -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대위'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날치기법 위반 평결을 촉구하는 집회 열다.

- 양심수후원회 제9차 총회준비위 두번째 모임이 열려 사업계획안, 예산안, 모범회원 선정, 임원 개선안 등 심의함.

27 -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3년6월형 확정.

- 민가협 176회 목요집회(김형찬 대책위-3.23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봉쇄 규탄, 시위하다 교내에서 사망한 고 류재율 학생 사례, 동국대 학생(홍대진)-시위도중 부상당함)

- 미결 양심수와 5년이하 형을 선고받은 기결 양심수에게 영치금 보냄(283명)

28 -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노수석 학생(연세대) 1주기 추모식이 연세대에서 열린다. 신촌로타리에서 노제를 지냄.

29 - 범대위 주최로 민생파탄, 부정부패, 국정문란, 김영삼 정권 퇴진 국민대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30 - '사민청 대책위' 사민청 구속자 석방을 위한 하루주막이 성대앞 메가호프에서 열린다.

-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금 드림.

- 무연고 출소 장기수 7분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 장가협에 지원금 전달.

- 미국수도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김태룡, 서경원님 자녀에게 전달.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신영희(성동구 행당동) 정인태(동대문구 전농3동) 윤 준(강남구 신사동) 이민철(강북구 번3동)

회원소식

● '나눔과 섬김의 예배 공동체' 한백교회(교역자 김진호 전도사)에서 97년 새해들어 장기수 후원을 목적에 두고 교인용 달력을 만들어 판매해서 모은 성금 4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미국에 살고 있는 알래스카 NAM.E 회원께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상영되었던 영화 <외투>를 팜플렛을 통해서 보고 강용주 씨(구미유학생 사건으로 1985년 구속, 현재 안동교도소에 구금중)에게 전달해 달라며 너무나 튼튼한 예쁜 외투 한벌을 보내주셨습니다. NAM.E 회원은 '마음 같아서는 양심수 모든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따르지 못해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원호 회원(김종대 선생의 아드님)이 3월 8일, 이미민 회원이 3월 30일 화축을 밝혔습니다. 행복하세요.

● 대전 민가협 홍성순 회장 회갑연이 3월 16일, 민가협 회원들의 축하속에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양심수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 정순택 선생님께서 청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전화/0431.223.4066

●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가 '교내질서 문란으로 징계받는 일' 등 부당한 사유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학교 당국이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0년 이 학교 평교수협의회 2대 회장을 지냈으며 91년엔 동료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에 교내 교수농성을 이끈 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합니다. 학술단체협의회 운영 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관련 학계에서 술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실적이 많고 강의평가도 매우 좋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교수로 초창기부터 후원회 회원으로 성원해 오셨습니다. 한선생님의 복직을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 김병일 회원이 김성란 님과 혼례를 올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만들며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4월 11일(금) 오후 3시, 연세대 동문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9차 정기총회에 모십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간헐 양심수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양심수후원회가 첫걸음을 내디딘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전두환, 노태우가

학살과 쿠데타의 범죄행위로 심판받고 있음에도

그들이 가둔 양심수는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민’ 4년동안 2,900여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권력형 부정 비리 주역들이 사면복권되고 있음에도

30년 넘도록 구금중인 장기수는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질환을 앓으며 여전히 갇혀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양심수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 큰 희망을 만들어 주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는 모든 양심수들이 옥문을 활짝 열고 우리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뜻을 다지고자 합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9차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김 승 훈

양심수후원회장 권 오 현

차 례

1부 • 양심수후원회 제9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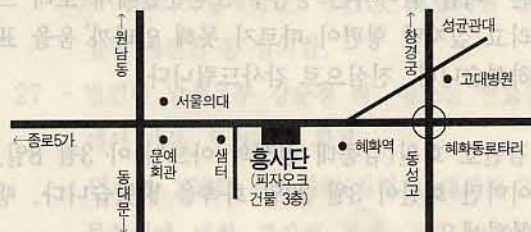
2부 • 모두가 하나되는 뒷풀이

일 시

1997년 4월 26일(토) 오후 4시

장 소

대학로 홍사단 3층 강당



- 지하철은 4호선 혜화역 하차

- 버스는 2, 3, 361, 12, 13, 20, 25, 63, 84, 113, 710번

혜화동 또는 성대입구 하차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요.
바쁜 일상에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돌아볼 새도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30여년 동안은
꼬박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0.75평 독방에서 더위를 피할 틈도 없이 창살 너머로
가끔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벗삼아 지내야 하는 사람들.
30년이 넘도록 면회한번 하지 못한채
자잘한 세상이야기 한 번 제대로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컴퓨터 키보드 하나로
재빠르게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명의 시대에
불편 한자루로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야만의 조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철은 단단하고 강하나 작은 불씨들이 모이고 모여 끝내는 철을 녹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철문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양심수 가족들의 눈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 ~ 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두고 옥밖으로 나온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